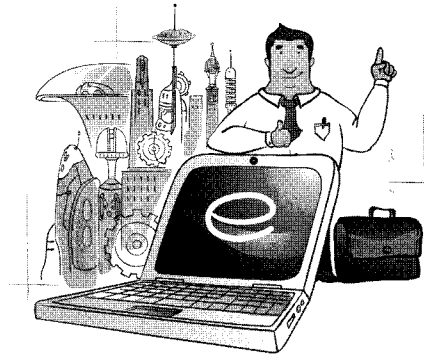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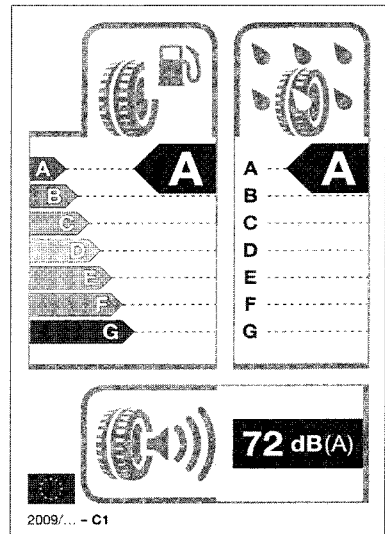


세계 '타이어 라벨링(Tire Labelling)' 법제화 진행현황

(1) EU

EU의회가 올해 4.22일 1차 법안 검토에서 의결하였던 타이어 라벨링 지침안은 이미 10월초 EU 이사회와 EU 의회 사이에 정치적인 의견조율이 끝난 사안으로서 지난 11.20일 이사회의 승인 후 EU의회에서의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2012년 7월 이후 생산된 모든 신규 타이어는 2012년 11월 1일부터 판매 시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연비(fuel efficiency) 표시 라벨링이 의무화되며, 이와 함께 젖은 노면 접지력(wet grip)과 소음(noise performance) 표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비등급은 가전제품에 대한 연비 라벨링과 유사하게 최상위 A등급(녹색)에서 최하위 G등급(붉은색)까지 7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젖은 노면 접지력도 A에서 G까지의 등급 표시로 나타내지며, 소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UN ECE 117)이 요구하는 시험환경에서 측정된 회전 소음 측정치를 구체적인 수치를 데시벨(decibe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EU 라벨링 표시〉

〈자료 : EU의회 및 유럽타이어고무협회(ETRMA) 홈페이지〉

(2) 일본

일본은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시책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에 따라 2015년 자동차 관련 신규 연비 규정을 마련하고 저연비타이어 보급촉진을 위한 타이어 라벨링 제도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저

연비 타이어 보급의 촉진을 위해 경제산업성 산하 '저연비타이어 보급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협의회는 산, 관, 학 및 소비자가 참가하여 관련세부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저연비 타이어 등급 구분과 라벨링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자동차타이어협회(JATMA)에서 가이드라인 형식의 기준으로 마련 중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책정하여 동 협의회에 제안하고, 2010년 이후 타이어 제조사의 카다로그를 통한 표시를 시작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JATMA의 저연비타이어 등의 보급촉진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승용차용 교환용 여름용타이어(신규 타입 타이어)를 적용대상으로 회전저항에 있어서는 'AAA, AA, A, B, C' 5개 등급으로, 젖은노면의 접지력은 'a, b, c, d' 4개의 범주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적용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판매 시 각사 임의대로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저연비타이어의 경우 2010년 12월까지 그리고 저연비타이어가 아닌 경우는 2011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연비타이어의 경우

회전저항	AAA	AA	A	B	C
동일마크 저연비타이어 Wet Grip	a	b	c	d	

• 저연비타이어가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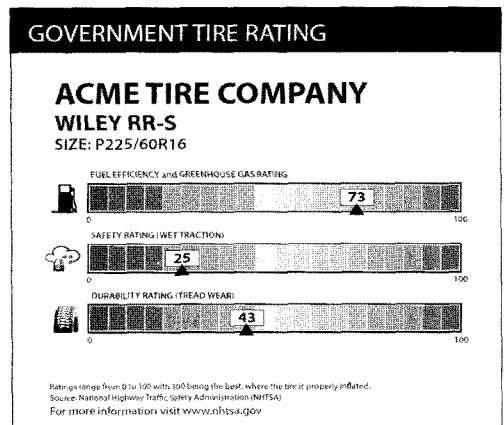
회전저항	AAA	AA	A	B	C
Wet Grip	a	b	c	d	

〈JATMA 가이드라인(안)의 라벨링 표시〉

(자료 : 한·일자동차타이어협회 정례회의(09.10.21) 자료)

(3) 미국

미국의 타이어 라벨링 법제화 진행은 현재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제안서(Proposed Rule)를 발표하여 업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상태이나, 아직 동 제안서에 대한 미국고무협회(RMA)를 비롯한 업계의 수정요구가 상당한 실정이다. NHTSA가 제안한 타이어연비등급제(Tire Fuel-efficiency rating system)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교체용 타이어는 타이어의 연료효율(회전저항), 내구성(마모), 안전성(젖은노면의 접지력) 3가지 부문에서 각각 0~100까지 범주에서 등급 표시를 종이라벨 형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미국의 NHTSA 라벨링 표시안〉

(자료 :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 K